

### 가정 예배 순서

- 사순절 여섯 번째 주일 /고난주일·종려주일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 이사야 53:5 ..... 다함께

찬 송(Opening Hymn) ..... 16장 ..... 다함께

교독문(Responsive Reading) ..... 59번 ..... 다함께

공동기도(Prayer) .....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피난처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오니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온 세상이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는 가운데 저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태를 통해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함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긍휼과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교만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주의 진노를 얻었다면, 주여 구하옵나니 용서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욱 깨어 있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힘닿는 대로 어려운 이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거든,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두려움을 내어쫓게 하옵소서. 사랑이신 주님.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배우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사랑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몸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알고 누리게 하옵소서.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Apostles Creed) ..... 다함께

성경봉독(Scripture) ..... 고린도후서 1:3-7 ..... 인도자

### “하나님의 위로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찬송 및 봉헌(Hymn & offering) ..... 465장 ..... 다함께

주기도문(Lord's Prayer) ..... 다함께

#### 교회 소식

-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Stay-At-Home order(자택 대피령)가 한 달 연장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침을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금주의 기도제목
  - 혼돈에 빠져 있는 전 세계가 이 전염병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만이 진정한 치료자이시고 사태를 종결시킬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분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할 수 있도록. 가정예배를 통해 더욱 예배와 교회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 힘들수록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

## 〈말씀묵상〉 고린도후서 1:3-7

- 3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 4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 5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 6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는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 7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앎이라

1. 나에게 고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없습니까? 왜 그런 두려움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까?
2.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 가장 힘들었던 고난의 때를 극복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였습니까? 그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위로해 주셨습니까?
3. 내게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받는 중에도 나보다도 더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까?